

장진기 / 김은경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소식

P.O.Box 0332, Kampong Cham, Cambodia
E-mail: changjinkee@gmail.com / keksk21@gmail.com

Tel: 855-97-807-1720(장진기) / 855-10-301-602(김은경)
070-7569-9088(인터넷전화)

2017년 2월 28일
25번째 선교편지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가정과 사역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늘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선교동역자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센터이전과 함께 시작한 2017년의 시작이 이제 그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전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었다면, 예배의 장소가 기존에 반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때문에, 혹시나 예배에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까 고민하며, 다양한 차선책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넓은 공간의 "산만함"이 아닌 좁은 공간의 "집중함"이란 은혜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센터부지 구입을 위해 모금을 하면서 부탁 드렸던 기도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교는 하드웨어(땅, 건물)가 아닌 소프트웨어(사람)이며, 이것을 절대 잊지 않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기도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을 곱씹으며, 부끄럽지만 한번 더 기도부탁 드립니다. 현장에 있는 동안, 이 기도제목을 결코 잊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간의 소식을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전합니다.

☞ 교회사역

[교회 이전] 기도로 준비하며 계획했던 새로운 장소로의 이전을 마쳤습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공간의 협소함이란 고민거리가 마음 한 켠에 근심 아닌 근심으로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전 처소에서 가장 힘들었던 예배의 산만함은 사라지고 좁은 공간 팍차게 모여앉아 예배 드리는 집중의 시간이 되어 감사합니다.



이전 후,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 중, 누군가가 헌금에 손을 댄 것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함께 예배 드리며 믿고 신뢰해 왔던 이들이기에 더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지는 것 같아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놓고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CCTV를 달자, 경찰에 신고하자 등, 여러 얘기들이 오갔는데, 먼저는 예배시간을 통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하고, 둘째는 제 자신이 좀더 조심하면서 혹시 모를 유혹도 생기지 않도록 헌금간수를 잘 하는 것으로 일단락 맺었습니다.

바라기는 헌금을 훔친 이가 주님 앞에 나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동시에 그 동안 쌓았던 신뢰란 단어가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 무너지는 아픔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행사 및 나눔사역] 지난 해, 마지막 교회사역 및 마을지원사역으로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조용히 돕고 지원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행사를 크게 키우는 이장님 덕분에 마을 주민들 전체와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그 앞에 섭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숙스러웠던 그 시간이 이제는 일일이 만나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얼굴을 보며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부족한 실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복음의 기

뽐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잠깐의 몇 마디로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들의 중심에 찾아와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선포합니다.



[마을사역을 위한 대지구입] “마을의 부지를 허락하소서. 그곳이 기도의 터가 되게 하시고, 배움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란 기도제목을 놓고 동역자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리며, 대지구입을 위한 모금을 시작한지 4개월이란 기간이 흘렀습니다. 최초 모금액을 5만불로 책정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현재 80%에 해당하는 4만불(2월 28일 환율기준)이 모금되었습니다.

『헌금내역: 워싱턴성광교회(10,000불) / 세광교회(청년2부) 외 2개단체 와 후원동역자 21분(34,809,000원)』

사역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워싱턴성광교회 및 모든 후원동역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전 소식에서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헌금해주신 분들의 성함과 금액을 기록했었는데, 동역자님 가운데 상당수가 이를 원치 않아 하셔서 별도로 무명이라 잡기보다는 전체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초 구입을 희망했던 대지 두 곳 중 한 곳이 선교편지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지 선택 기준을 놓고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고민이 혹 세상의 잣대로 대지를 선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도 되었는데, 선택이 아닌 결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한 곳만을 바라보려 합니다.

다만, 남은 한 곳은 전체 6필지(24m X 20m) 57,000\$(필지당 9,500\$)로 당초 대지구입을 위한 예상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장님과 협의하면서, 땅 주인을 통해 대지금액을 낮추거나 혹은 대지를 나눠서 구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위치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장님의 의견과 함께 정부인가의 대지를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겠다는 의견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 **현지학교 후원협력사역(병스나이 훈랭초교)**

[교문공사 & 유치원 물품지원] 학교 외형작업에 첫 발을 내딛는 교문공사가 완공 되었습니다. GS리테일이 후원하고 The Dream을 통해 진행된 이번 공사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공부하고 싶은 학교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The Dream을 통해 지원받은 물품과 지아, 지훈이의 물품 중 일부를 학교 유치원에 기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아와 지훈이가 자신들의 물품을 기부하는 것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는 것을 보면서 철부지 어린 아이라고만 생각했던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대견스럽고 감사합니다.

[언어학교 & 유치원 교육지원] 언어학교에 대한 교육부 인가를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다는 판단에 학교장과 협의하여 4월 쫄츠남(새해)이 지나면 첫 강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강의시작 전까지는 강의를 위한 준비 시간을 갖기로 하고 현지에서 통용되고 있는 한국어교재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현지인들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언어의 구사와 표현, 바른 교수법을 통해 필요를 채워주는 언어학교가 되기

를 소원합니다.

또한, 언어학교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 유치원의 교육지원을 위해 아내 김 선교사가 음악교육을 담당하기로 하고, 저는 공작시간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각자 맡은 시간을 통해 복음을 접목한 교육으로 원생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길 소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학교의 일이 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교장님 덕에 사역의 폭을 넓힐 수 있어 감사하고, 또한 교장님도 저희 가정의 일들을 본인 일처럼 생각해주며 큰 힘이 되어주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정의 소식

[자녀의 소식] 4월 초, 지민이의 정기검진으로 3월 27일 임신 귀국길에 오릅니다. 정기검진시 지민이의 심장에 특이사항이 없기를 바라며, 재활치료(언어, 발달, 다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지아와 지훈이는 홈스쿨링 각 학년 과정(지아: 2학년 / 지훈:1학년)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홈스쿨링 학교로부터 다음 학년 과정의 교재를 요청한 상태인데, 국내 일정 중에 받기를 원합니다. 배송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 기도제목

[대지구입] 마을 부지의 공터를 허락하소서. 공터가 '기도의 터'가 되게 하시고, '배움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대지구입비용의 80%가 채워짐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나이다.

[교회사역]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이전한 장소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언어학교] 교육부 인가를 받기 전, 먼저 자체적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학교사역이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하는 이번 사역이 그 초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지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새롭게 진행될 교육사역을 위해 지혜를 구합니다. 교육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 가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 속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정되게 하옵소서.